

잊혀진 존재 혼혈아들의 초상

주명덕 《섞여진 이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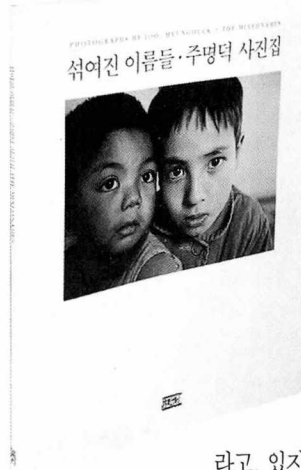


음울한 시대의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눈빛은 여전히 영롱하다.

검은 살갓, 노란 곱슬 머리,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쫓리맥, 데이비드, 조, 남아, 헤숙, 순남이. 우리가 전쟁이 끝났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동안 거역할 수 없는 혼혈의 울가미에 갇혀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홀트 씨 고아원의 아이들은 오늘도 혈육 한점 없는 세상을 향해 결핍의 눈망울을 데굴데굴 굴린다. 사진의 사실성과 기록성을 천착해 온 주명덕(58)은 사진집 《섞여진 이름들》(1998, 시각)을 통해 감춰진 한국 현대사의 비애를 들춰낸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적도 모르고

태어나 버려진 아이들. 기다림에 지친 때마 른 눈으로 자신을 닮은 서양 인형을 부둥켜 안지만 그쪽으로도 귀속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한글을 배우고 영어를 익혀야 하는 아이들, 십자가 앞에서 한껏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들은 자신의 존재가 어느 곳에 다다를 것인가 하나님께 묻는다. 너무 일찍부터 비정의 흑독함을 깨달았지만 아직도 거친 감정을 추스리며 혹시 '양자'라는 선택의 주사위가 맞춰질까 기다린다. 그들에게 입양은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숙명의 암운을 헤치고 선택의 빛이 드리워지기까지의 기다림은



섞여진 이름들·주명덕 사진집

흑독할 수밖에 없다. 음울한 시대의 사생아로 태어나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빛이 영롱한 눈을 가진 아이들이다. 그 눈빛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그리움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손을 잡아달

라고, 있지 말아 달라고 조르지 않는다. 시린 가슴을 조여가며 성장할 뿐이다. 이 땅에서 쫓겨나듯 떠나더라도 그들은 비정의 생채기를 훈장처럼 매달고 살아갈 것이다.

전쟁이 끝난 15년 뒤에 사진집이 발표되자 혼혈고아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미 한국 기록사진의 고전이 된 사진집의 복간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과 혼혈고아들이 상재하고 있음을 증언한다. 한국 기록사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미적 가치를 실현한 작가로 평가받으며 《한국의 장승》(1976, 열화당), 《수원성》(1981, 광장), 《절의 문창살 무늬》(1986, 시각), 《성철 큰 스님》(1993, 장경각) 등의 많은 사진집을 남겼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35호 / 1998년 5월 20일 발행

발행인 — 김낙준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환
 송상용 이중한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종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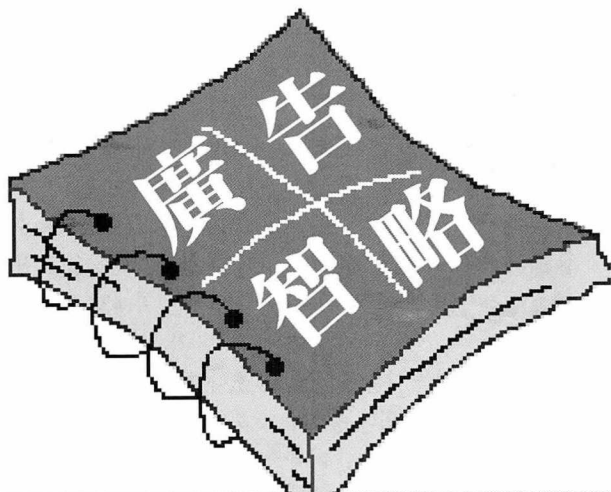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매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보다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은 어려운 출판계의 현실을 《출판저널》 광고지략으로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